Market Index / 5일

코스피지수 ▼	5383.80 -300.00	코스닥지수 ▼	678.41 -36.54	유가(WTI, 달러) ▼	88.12 -7.97	환율(원)	1USD	살때 1364.67	팔때 1317.73	1EUR	살때 1536.20	팔때 1476.26
							100￥	861.88	832.24	1CNY	211.18	191.08

부동산 경매 침체 속 주상복합 무더기 응찰

도련1동 아파트 3건에 응찰자 87명… 전국 Top10 기록
10월 경매 물건 895건중 156건 주인 찾아 낙찰률 17.4%

두 달 연속 제주지역 부동산 경매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시 한 주상복합건물에 무더기 응찰자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경·공매 기업 지지옥션의 '10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제주지법에서 진행된 경매물건은 895건으로 전달 849건보다 46건 늘었다. 하지만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8월(945건) 수준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895건 중 156건이 낙찰되면서 낙찰률은 17.4%, 낙찰가율은 42.9%를 기록했다. 낙찰률과 낙찰가율 모두 지난달(22.2%, 57.4%)보다 하락하면서 전국 낙찰률 22.1%, 낙찰가율 55.1%에는 미치지 못했다.

제주지역 주거시설 경매 건수는 228건으로 전달 178건보다 50건이나 늘어나 전체 증가 건수 대부분이 주거시설로 추정된다. 낙찰 건수는 71건, 낙찰률은 31.1%, 낙찰가율은 47.0%로 낙찰률은 전국평균 27.0%보다 높았지만 낙찰가율은 69.2%보다 낮았다.

업무·상업시설은 201건 중 27건이 주인을 찾아 낙찰률은 13.4%, 낙찰가율은 41.2%를 보였고 토지 경매는 460건 중 58건이 낙찰되면서 낙찰률은 12.6%, 낙찰가율은 35.6%를 기록했다. 토지 경매의 경우 지난 9월 낙찰률 14.7%보다 떨어져 물건이 계속 쌓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주거지설 경매 중 아파트는 모두 34건의 경매가 진행됐으며 낙찰가율은 75.2%로 전국평균 85.2%에 못미쳐 아파트 경매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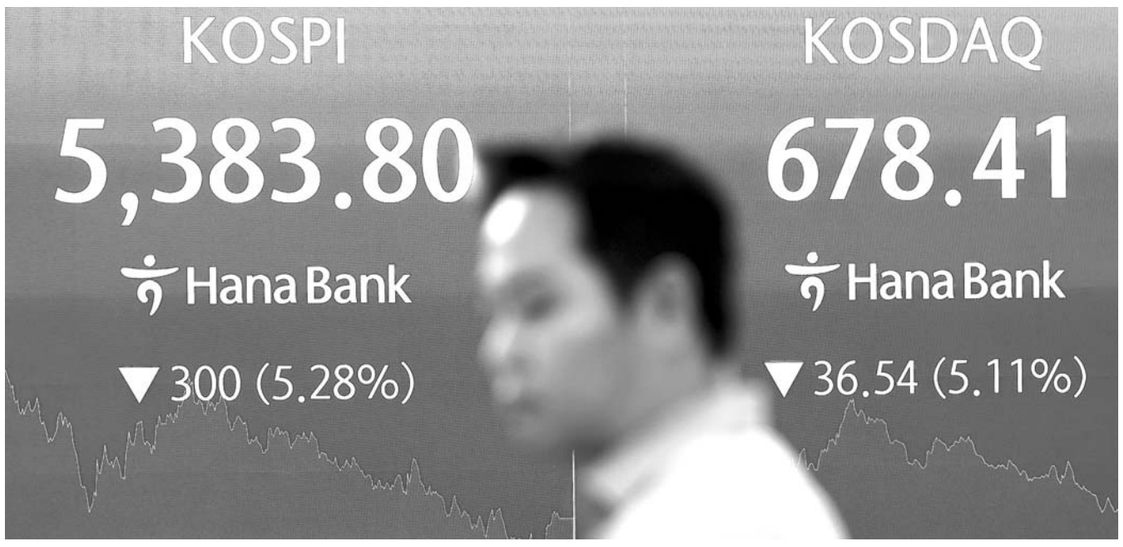
아파트 중 제주시 도련1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3건에 30명 안팎의 응찰자가 몰려 전국적으로 응찰자 수 Top10 안에 들어갔다.

3·4·5층에서 1호씩 모두 3호에 대해 감정가 각각 4억6000만원으로 경매가 진행됐고 3층 31명, 4층 29명, 5층 27명이 응찰에 나서 3억6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 사이에서 낙찰됐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올 상반기 진행된 러닝위크 마라도런. 제주관광공사 제공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본점 스크린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등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블루 웨이브)하면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로 반도체 수요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각각 전거래일 대비 5% 넘게 하락한 5383.80(5.28%), 678.41(5.11%)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블루웨이브 쇼크 '검은 목요일'… 코스피·코스닥 급락

민주당 압승에 AI 개발·데이터센터 건설 속도조절 우려 부각

5일 국내 증시가 5% 넘게 급락하며 '검은 목요일'을 기록한 것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이 메모리 업체들의 신규 발주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되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전력기기 등 AI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300.00포인트(5.28%) 내린 5383.80으로 마감, 지난 4월 3일(5337.30)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코스닥 지수는 36.54포인트(5.11%) 내린 678.41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지난 7월 30일(644.78) 이후 약 3개월 만에 600대로 밀렸다.

이날 양 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같은 날 두 시장에서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두 시장이 모두 급락한 것은 각 시장 대표 종목인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주가 큰 폭으로 내린 영향이 크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방의회 상·하원과 주지사 과반이 모두 민주당에 넘어간, 이른바 '블루웨이브'가 국내 증시에는 충격으로 다가온 모양새다.

시장 구조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 집중된 국내 증시의 경우 AI와 데이터센터투자에 대한 속도 조절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압승에 더 취약했다. 특히 텍사스와 오하이오 등 미국의 주요 데이터센터 투자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주지사로 당선되며 데이터센터 건설 관련 인허가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더욱 부각됐다.

일례로 텍사스는 2028년까지 미국에서 새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센터 용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여기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번 선거로 확인되며 민주당이 관련 규제에 한층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연합뉴스

'2026 제주 러닝위크 시즌2' 시작
곳곳 달리며 섬의 매력 만끽

내달 15일까지 제주 전역
25개 러닝 코스 빙고 미션
완주 경품에 로컬 카페 할인

제주의 가을과 겨울을 달리면서 느끼고 경품까지 얻을 수 있는 '2026 제주 러닝위크 시즌2'가 5일 시작됐다.

제주관광공사는 상반기에 이어 가을·겨울 제주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러닝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관광 비수기 방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6 제주 러닝위크 시즌2'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더 제주 포시즌(THE JEJU FOUR SEASONS)'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 전역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모바일 빙고런'과 우도·가파도에서 함께 달리는 오프라인 '러닝아일랜드'로 진행된다.

'모바일 빙고런'은 제주 전역의 러닝 코스를 달리며 모바일 앱으로 완주를 인증하는 참여형 이벤트로 참가자는 전용 모바일 앱에서 러닝 코스와 주변 관광정보를 확인하고, 지정 코스를 완주하면 빙고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다.

이번 시즌에는 25개 코스를 활용한 빙고 미션을 도입해 참여의 재미를 더했고 미션 달성에 따라 다양한 경품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도내 로컬 카페 등 소상공인 매장과 러닝 코스를 연계해 참가자에게 할인 및 이용 혜택을 제공, 러닝 관광이 지역 상권 방문과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러닝아일랜드'는 제주 본섬과는 다른 매력을 지닌 우도와 가파도를 무대로 진행된다.

우도에서는 1박 2일간 섬의 해안길을 달리며 일몰과 일출을 감상하고, 지역 숙박 및 먹거리 등을 함께 경험하는 체류형 러닝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파도에서는 평탄한 섬 지형을 활용한 러닝과 함께 참가자들이 팀을 이뤄 섬 곳곳의 명소를 찾아가는 미션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026 제주 러닝위크 시즌2'의 세부 참가 방법과 프로그램별 모집 일정, 스탬프런 인증 상점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인스타그램 '러닝위크제주(@Runningweek__jeju)'와 '더 제주 포시즌(@the__jeju__fourseason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영석기자

제주시정소식

별 볼 일 있는 천문여행 개최

○ 일시: 2026. 11. 14.(토) 14:00~22:00
○ 장소: 제주별빛누리공원 일원
○ 대상: 도민 및 관광객
○ 주요 프로그램

구분	참여방법	주 요 내 용	장소
강연·공연※ (14:00~22:00)	사전접수 & 현장접수	과학 마술 공연 2회 (원더매직 마술사)	천체 투영실
		현악 4중주 돔 음악회(프롬디클래식)	
		천문 강연(과학커뮤니케이터 항성)	
별자리 문화 체험 (15:00~21:00)	현장접수	재미로 보는 점성술 & 타로	세미나실
천체관측 (19:00~22:00)		달, 토성, 성단 등	주·보조 관측실

※ 강연·공연 사전접수 안내
- 모집 인원: 프로그램 별 사전 접수 각각 80명, 잔여석 현장 발매(총 100명)
- 참가 비용: 1인당 2,000원
- 모집 기간: 2026. 11. 10.(화) 14:00 ~ 11. 12.(목) 21:00
- (선착순 접수) 별빛누리공원 누리집→ ID당 최대 3명 신청가능
- 행사 당일 안내데스크에서 명단 확인 및 발권 후 입장

○ 문의: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별빛누리공원 (☎064-728-8900)

2026 사라노을 음악회 개최

○ 일정 : 2026. 11. 14.(토) 16:00 ~ 19:00
○ 장소 : 건입동포제당 일대(우천 시에도 동일 장소 운영)
○ 참여인원 : 지역주민 등 200여명
○ 주최/주관 : 건입동
○ 주요내용(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출연	비고
16:10~17:10	마술, 버블쇼	마술 및 버블쇼	
17:10~17:15	내빈 및 행사소개	진행 '아나운서 안지예'	
17:15~17:25	어린이 합창단 퍼포먼스	클럽 '노래하자 춤추자 어린이 합창단'	
17:25~17:35	낙조의 순간 성악 앙상블 갈라무대	Quattro Voce	
17:35~17:45	창작클래식, 대중음악	프로젝트 온	
17:45~17:55	마음을 담은 소리 · 해금 산조와 제주민요대회	해금 '송예슬'	
17:55~18:05	노을빛 아리아	소프라노 이채영&프로젝트 온	
18:05~18:15	천상의 소리	카운트테너 임준혁 &소프로젝트 온	
18:15~18:25	뮤지컬 갈라 무대	뮤지컬가수 장진혁	
18:25~18:55	초청 가수 무대	자전거 탄 풍경	
18:55~19:00	관객과 함께하는 참여형 무대	전 출연진	
19:00~19:05	폐회 및 안전귀가 안내	진행 안지예	

※ 낙조 하이라이트 : 일몰 17:32 행사소개와 함께 성악 무대 편성 (노을과 음악이 겹치는 순간 연출)

○ 문의 : 건입동주민센터(☎064-728-4644)

2026 애월읍 청소년 전동비행기 대회 개최

○ 일시: 2026. 11. 15.(일) 14:00 ~
○ 장소: 귀일중학교 체육관 (제주시 애월읍 항몽로 44)
○ 주최: 애월읍청소년지도협의회
○ 내용
- 참석대상: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진춘희) 및 청소년 70~80명
- 대회내용: 전동비행기 만들기 및 날리기(오래 날리기 심사), 체험 부스 운영
- 청소년의 대회 참여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건전한 인성 함양

○ 문의: 애월읍 사무소(☎064-728-8824)

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써니트, 사라향, 설향, 유라, 레몬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홍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7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귤 신품종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 표 : 010-2691-1883